광주 폴리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2012년 6월2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광주NGO센터 대강당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 폴리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2012년 6월2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광주NGO센터 대강당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포 럼 식 순〉

<15:00~15:25>

사 회: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처장)

의식행사

◯인사말 김 상 윤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

임 낙 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현황보고 이 규 남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 과장) ····· 4p

<15:26~17:00>

본행사

사 회: 송인성(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발 표 이 무 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지역문화교류재단 정책위원장) ····· 15p

이 효 원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 34p

◯토 론 신 종 형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부장) ····· 42p

류 영 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 46p

이 경 희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53p

홍 인 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56p

◯종합토론 시민패널

김 선 재 (문화지기단 팀장)

이 순 미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모임 대표)

김 동 헌 (광주광역시 동구 의원)

토론 1

공공디자인측면에서 본 광주 폴리

신종형(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부장)

공공디자인측면에서 본 광주 폴리

1. 광주 폴리 추진배경

오늘날 우리의 지방 도시들은 구도심 쇠퇴현상이 날로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 도시내에서 지역 간 혹은 구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구도심재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책수립 그리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이 보유한 역사,문화,장소적 특성들의 재가치화를 통해 도시적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그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21세기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구도심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시에서는 창조적인 도시공간 환경의 정비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가고 있다.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구 전남도청 자리에 문화의 전당 건립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개최로 대내외적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1년도에 도시문화를 증진시키고 문화도시의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및 커뮤니티 증진을 목적으로 광주 구 읍성 성벽의 흔적을 따라 중요지점에 10개소, 광주 푸른길에 1개소를 설치하여 광주 구도심의 장소성과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도시공간의 질적향상을 통해 구도심의 문화재생 및 도심 활성화의 촉매제로서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폴리 작품의 컨셉

○ 소통의 오두막(스페인, 후안 헤레로스)

교통섬을 작지만 매력적인 소공원으로 변화시킨 계획으로 현재의 장소적 특성과 자연적 배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소쇄원과 한옥의 굴뚝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휴식과 만남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원문 제등(독일, 플로리안 베이겔)
한국 석등의 이미지를 디자인하였으며 맨 아래층에는 5. 18기념비가 위치하고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광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 광주사람들(미국, 나데르 테라니)
이 작품의 계획은 지면과 하늘사이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자연공간을 파고 드는 것입니다. 이는 불규칙적으로 교차하는 강철봉으로 카멜레온처럼 여러 모습을 취한다고 하겠습니다.

○ 유동성조절(스페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작품의 컨셉은 태극기의 태극문양이며 광주의 격동적인 역사와 과거의 기억이 요동치는 듯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 99칸(미국, 피터 아이젠만)
작품의 컨셉은 한옥으로 건물 안쪽의 빈 공간이 존재하고 각 공간마다 위계질서가 있는데 이를 하나의 건축적 요소로 활용하였고 조선의 양반들이 지을수 잇는 최대 개수인 99칸으로 구성된 폴리를 광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 열린 장벽(한국, 정세훈+김세진 전국현상공모 당선작)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광주읍성의 성벽을 컨셉으로 하였고 위에 떠있는 물체는 옛 읍성의 일부였던 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현재화(한국, 조성룡)
황금로사거리 바닥에 구 읍성이 존재하던 광주 구 시가지 부분은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여 보행자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 열린공간(프랑스, 도미니크 페로)
동양의 가구식 구조물인 한국의 누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폴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 광주사랑방(미국, 프란시스코 산인)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시아문화전당을 향한 입구로서 그리고 아주작은 전시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잠망경과 정자(일본, 요시하루 츠카모토)
잠망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이들의 학업으로 지친 하루에 탁 트이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푸른길문화센터(한국, 승효상)
농장다리와 철길에 얽혀있는 기억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3. 광주폴리의 성과

○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광주폴리는 지난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 디자인비엔날레 위상을 한 차원 끌어 올리고, 소형 공공구조물 설치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광주폴리를 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도시전문가 및 교수, 학생 등 많은 외지인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화에 성공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4. 2012년 광주폴리 설치 계획

○ 올해 광주폴리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6~8여개의 폴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 작년에 참여한 작가 분들이 피터 아이젠만, 도미니크 페로 등 모두 세계적인 거장들로서 광주의 역사적 배경, 광주비엔날레의 명성을 듣고 참여해 주셨는데 올해에도 작년처럼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문화아이콘으로 정착시켜 광주를 폴리시티로 자리매김하고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작년에는 우리 광주시 도시공간의 모태인 광주읍성터를 폴리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문화적 거점을 조성코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장소를 선택하다 보니 그 지역이 구도심의 중심상업지역으로 보행로가 좁고 각종 공공시설물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작품 대부분이 도심공간 속 쉼터나 휴식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에는 기본적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 시민모두가 폴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론 2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

류영국(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 폴리(Gwangju Folly), 이대로 좋은가?

1. 들어가면서

광주폴리는 아직 광주시민의 생활속에 녹아 문화로 승화되지 못한 테제수준의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도전과 시도는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정책으로서의 목표와 그 성과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피드백하여 내일을 살아가는 것은 사유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위해 진행된 광주프로젝트는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성을 그대로 드러낸 속도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할 대목이다. 속도전은 획일성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반력을 키운다.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전문가나 몇 사람의 생각을 강요함으로써 마찰비용을 증가시킨다.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유치로 스타마케팅을 장소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일이다. 훌륭한 작가라고 해서 좋은 작품을 생산해 내는 것은 아니다. 장소에 대한 진정어린,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한 장소 사랑의 창조적 결과물이어야 한다. 광주폴리도 무엇보다도 예술작품으로서의 작품성이 중요하다. 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과 실용과 편리가 녹아든 작품성, 그리고 스타작가 이들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도심재생과 광주폴리가 관련성을 가질려면, 장소성에 바탕을 둔 지역의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결합해 있어야 한다. 우두커니 홀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폴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강조되거나 점증되는 어떤 리듬감이 존재해 장소의 위계성을 정의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폴리와 인접건물의 용도가 자연스럽게 결합되거나 상승효과를 발휘할 때 진정한 도시재생수단으로서의 폴리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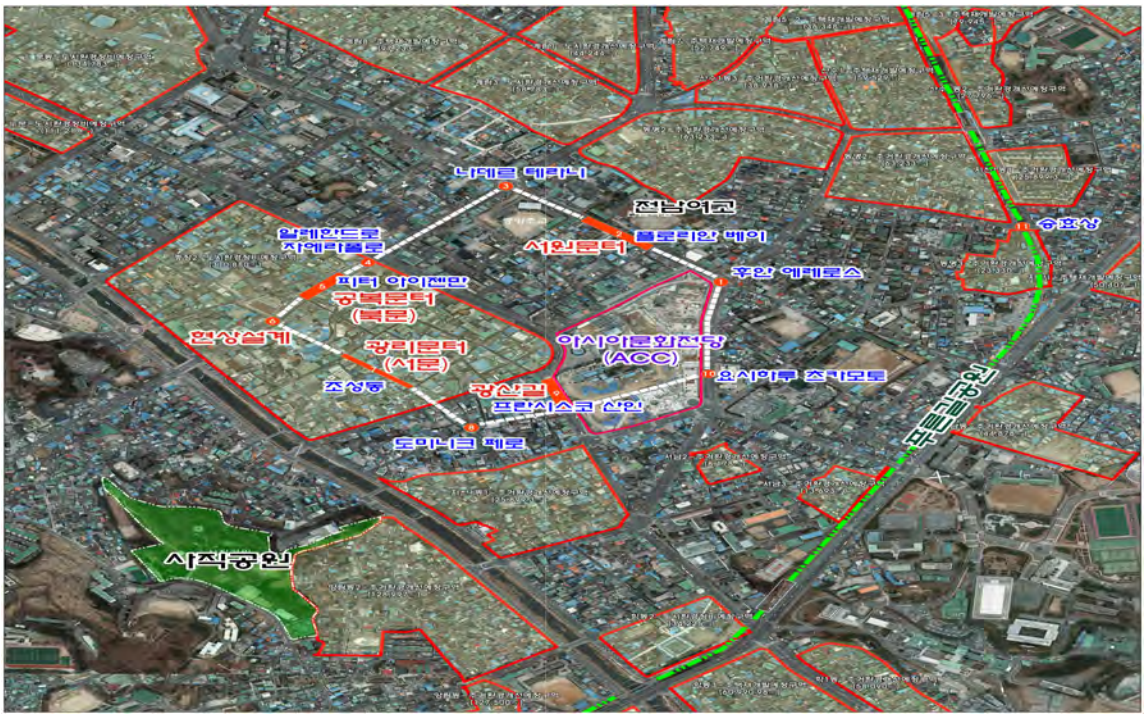
2. 광주폴리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과제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 중 광주폴리 주변(반경 500m)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상황을 종합해 보면, <표 1>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총 21개 지구에 면적은 1,420,394㎡에 달한다.

<표 1> 광주폴리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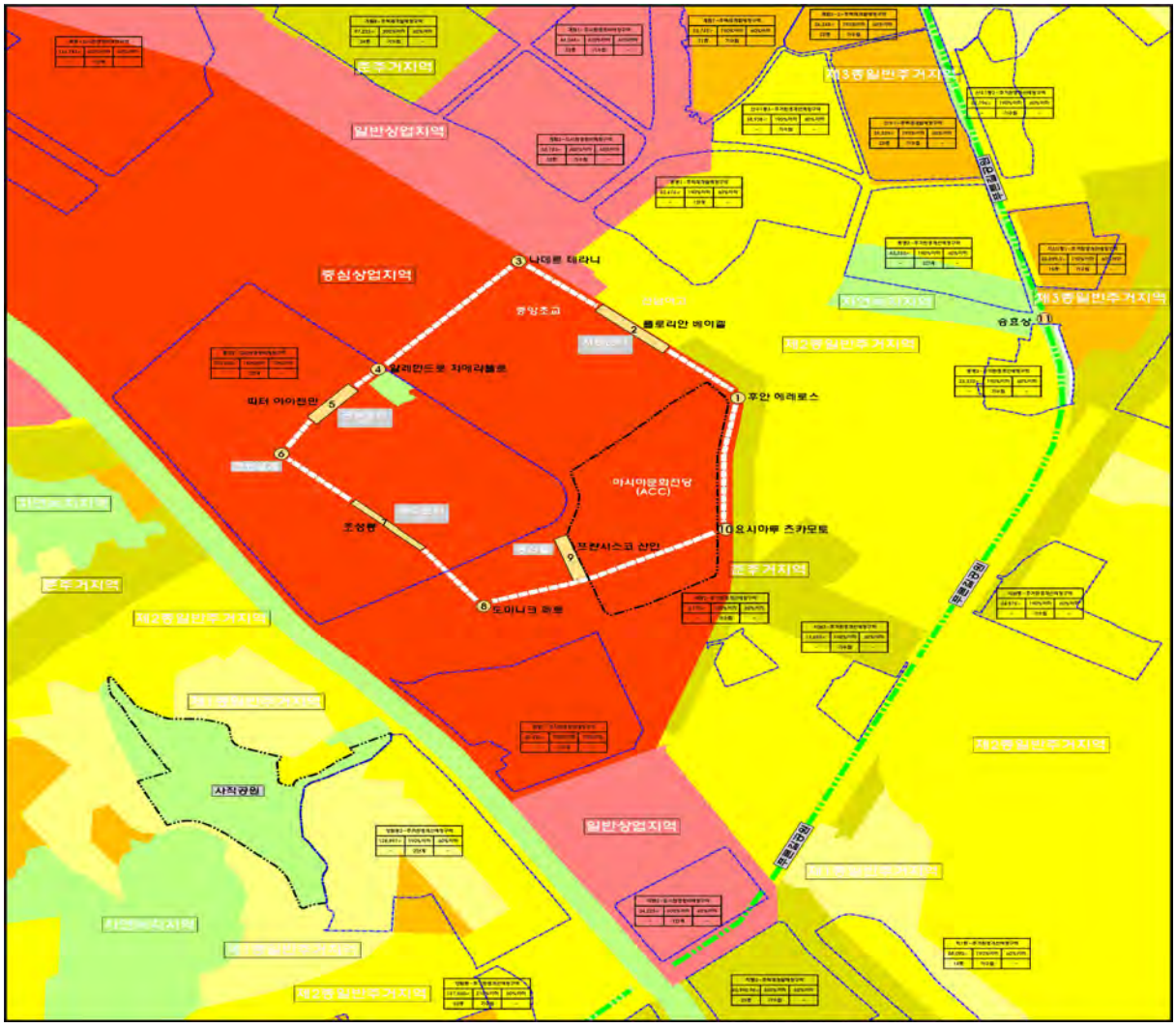
연번	구	사업방식	지구	위침	면적	개발방식
1	동구	도시환경정비	계림1	계림동287-5번지일대	44,244	전면
2	동구	도시환경정비	계림3	계림동301번지일대	58,783	전면
3	동구	도시환경정비	금동1	금동137번지일대	80,496	혼합
4	동구	도시환경정비	충장2	충장로5가49번지일대	310,880	혼합
5	동구	도시환경정비	학동2	남광주역일대	34,225	혼합
6	동구	주거환경개선	동명2	동명동170번지일대	63,233	혼합
7	동구	주거환경개선	동명3	동명동50번지일대	23,330	현지개량
8	동구	주거환경개선	산수1동2	산수초교 주변	27,796	현지개량
9	동구	주거환경개선	산수1동3	산수동490-12번지일대	38,938	현지개량
10	동구	주거환경개선	서남2	동구청 남측	8,178	현지개량
11	동구	주거환경개선	서남3	조대공대 서측	13,693	현지개량
12	동구	주거환경개선	서남동	서석동424번지일대	44,878	현지개량
13	동구	주거환경개선	지산1동1	지산동673번지일대	25,899	전면
14	동구	주택재개발	계림5-2	계림동10-1번지일대	36,348	전면
15	동구	주택재개발	계림7	계림동193번지 일대	52,749	전면
16	동구	주택재개발	산수1	산수동431-3번지일대	59,529	전면
17	동구	주택재개발	학동3	학동939-16번지일대	60,990	전면
18	동구	주택재개발	계림8	계림동493번지일대	97,233	전면
19	동구	주택재개발	동명1	동명동241번지일대	82,474	전면
20	남구	주거환경개선	양림동	양림교회 부근	127,500	전면
21	남구	주거환경개선	양림동2	학강초교 북측	128,997	혼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유형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이 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6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광주폴리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현황

아울러 도시계획적으로는 광주읍성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광주폴리가 입지한 지역은 푸른길 공원에 입지한 승효상 감독의 '푸른길 문화샘터'를 제외하고는 중심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광주폴리주변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 보면, 광주폴리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보도와 차도)와 공원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에 입지한 시설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어야 하는 등 도로법에 의한 허가와 관리대상이다. 아울러 도로 교통의 확보,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인 도로시설물과 구분하여 도로점용물에 해당된다.

도로 공간은 승용차나 자동차 위주의 통행기능을 중요시하는 도로법 등 관련규정으로 제제를 받음으로 창조성이나 작품성을 저해할 수 있다. 문화나 예술, 또는 관광자원으로 설치나 관리를 위해서는 광주폴리를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로 특화하여 도로나 공원에 중복결정하거나 제척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공간의 공공시설물 들에 대한 종합계획인 '광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문화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조화와 연계를 도모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광주폴리주변와 도시재생과의 관련성

작품명	작가명	위치	입지공간	도심재생과의 관련성*)
소통의 오두막	후안 헤레로스	장동사거리	보도	○
서원문 제등	플로리안 베이겔	김재규 경찰학원	보도	○
광주 사람들	나더 테라니	대한생명 사거리	보도	×
유동성 조절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금남로공원	보도	○
99칸	피터 아이젠만	충장로파출소	보도	○
열린장벽	정세훈, 김세진	광주세무서	보도	○
기억의 현재화	조성룡	황금로콜박스	차도	×
오픈 박스	도미니크 페로	구시청사거리	차도	○
광주 사랑방	프란시스코 사닌	문화전당 옆	보도	○
잠망경과 정자	요시하루 츠카모토	대성학원	보도	○
푸른길 문화샘터	승효상	농장다리	공원	◎

*) 도시재생사업과의 관련성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사업화 가능성과 광주폴리의 도시재생사업에의 기여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임(×(관련없음), ○(관련있음), ◎(관련높음)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광주폴리와 도시재생사업과의 관련성을 평가한다면 승효상의 '푸른길 문화샘터'가 농장다리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푸른길 공원'과 '동명3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연결하는 입체보도기능에 통과자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회동의 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배려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앙초교앞 상가와 초교 담쟁이 넝쿨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버려진 듯한 파이프의 집합체인 나더 테라니의 '광주사람들'은 경관적으로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견인역할로서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동사거리의 후안 헤레로스의 '소통의 오두막'도 인접토지의 용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쉼터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아시아문화전당(ACC)이며, 이 전당을 중심으로 한 예술의 거리, 광주천, 푸른길 공원, 사직공원과 부설 주차장, 그리고 광주역을 보행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폴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금남로 조각의 거리의 조각, 국적불명의 광주천의 다리 상부 장식물, 사직공원의 폴리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평가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서의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마무리 하면서

광주 폴리가 구마모또 아트폴리스, 안양예술공원 처럼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하는 학자나 실무자들의 관광코스가 되기를 바란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들과 광주비엔날레 방문객들사이에서 거리에 널리 퍼져있는 폴리를 보기위해서 숙박정보를 알아보고, 폴리주변의 식당과 쇼핑센터를 검색하는 문화가 봇 물 터지 듯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광주폴리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의 실마리를 푸는데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폴리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지역과 폴리가 상호결합될 수 있도록 자기 땅에 지주들이 폴리를 유치하고, 폴리가 토지이용과 결합되어 상생발전 되어 도시재생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로 광주폴리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광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광주시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문화시설계획으로 포함시켜 법제화 제도화하고 관련계획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폴리와 관련성이 높은 금남로 조각의 거리의 조각, 예술의 거리의 페이브먼트, 광주천 다리 조형물 등과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 폴리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광주문화재단에서 관리는 총괄만 하고, 지역상인회나 학원 등에 관리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건립 추진시점부터 관리에 염두를 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쓰레기장이나 허드레 물품의 창고로 전락하여 이미지가 실추되면 방문객들 뿐 만 아니라 우리스스로 찾지 않는 쓸모없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넷째로 진정 광주시가 광주폴리를 도시재생수단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도시재생사업 지원차원에서 문화시설(작가지원, 자금지원, 시설제공 등)을 지원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시설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시설과 장소와의 관계, 기존 폴리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요즘 주민참여가 핵심과제다. 주민참여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실천의 또 다른 표현이다. 광주폴리지킴이, 광주 폴리 알림이 등을 만들어 폴리의 유지관리는 물론 폴리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민주체로 추진함으로써 폴리에 스토리가 쌓여 그야말로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토론 3

광주 폴리, 도시 재생의 올바른 방향을 촉매하는가?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광주 폴리, 도시 재생의 올바른 방향을 촉매하는가?

창조도시의 기본은 문화적, 생태적 도시재생이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문화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변화된 것은 도시재생이 도시가 풀어야할 현안이기 때문이다.

광주폴리는 강운태시장의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생태공동체를 담은 역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다. 민선 5기의 강운태시장의 창조도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시민들에게 선보인 대표적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광주폴리가 광주를 창조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했는가? 생태적, 문화적 도시재생을 촉매하는 역할을 했는가? 결론은 '아니다' 이다. 이제 2차년도에 접어든 폴리에 대해 조급한 판단이라 지적할 수 있지만 창조도시의 기본이 될, 그리고 도시재생의 기본이 될 중요한 두가지-**시민들과의 소통(시민주도)과 도시공간의 공공 거점의 확대**-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1. 폴리를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의 난맥, 시민소통 부족에 기반함.

○ 광주시는 어반폴리(2010년, 2011년 폴리에 대한 명칭)를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어반폴리 기본계획을 수립('10. 8.31)하고 시민보고회('11. 2.17)를 하기까지 시민들과 어반폴리에 대한 기본계획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다. 시민보고회에서도 참여한 방청객(시민)들과 기본적인 질의 응답과 토론의 시간도 할애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후 폴리가 현장에 설치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폴리에 대해 민원해결을 위한 설명과 간담회는 진행되었을 수 있지만 도시공간의 주인인 시민들과의 폴리의 방향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은 배제되었다.

○ 폴리가 설치된지 1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구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폴리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차갑다. 걸으면서, 차량으로 만나는 폴리에 대해 과거 금남로의 조각품들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전문가, 건축가들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의 하나일 뿐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11년 30억원의 예산, 2012년부터 매년 25억씩 10년간 투자되는 사업은 행정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시민참여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으로 시대는 변화되었음에도 도시공간의 주인인 광주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폴리가 아닌, 광주시행정과 건축가 위주의 폴 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은 여전히 객체로 남겨져 있다.

○ 지난해 만든 11개소의 폴리를 투어하는 폴리투어 프로그램이 4~6월 계획되고 안내되었으나 일반시민들의 신청의 극히 미비하다. 학생들과 외지인(대구)의 폴리투어가 진행되었을뿐 둘째, 셋째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2차례로 계획된 폴리투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차갑다. 광주시가 폴리의 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폴리해설사를 양성하였으나 직접 폴리해설을 듣고자 하는 시민들이 없는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2. 도시재생, 새로운 공공의 거점 마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과거 자전거도로에 대한 국가 정책이 진행될 때 광주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교통의 약자인 보행자들의 공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을 만들었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 2011년 설치된 광주폴리는 대부분 보행자들의 공간에 만들어졌다. 작은 교통섬에 설치된 폴리도 있으나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두 보행자의 시각은 배제되었다. 인도에 설치된 폴리는 좁은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있다.

○ 보행자의 입장에서 폴리는 ‘공공의 적’이다. 교통약자이며 배려되어야 할 보행자들의 공간(선)위에 점으로 설치된 폴리는 광주시가 취지로 내세운 “점을 선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점으로 남겨져 있다.

○ 폴리의 사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을 도시재생을 견인할 새로운 거점 공간이다. 새로운 거점공간은 기존의 공공의 공간인 인도가 아닌, 새로운 공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의 공간에 무엇을 설치하든 새로운 거점의 공간이 되기는 어렵다. 도시재생을 견인한 중요 지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굳이 한국은행 부지의 공원화를 통해 주변 공간이 활성화된 사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작은 사유지의 공공화를 통해 주변의 변화를 이끈 사례는 곳곳에 많다.

○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요 거점에 새로운 공공의 공간(크지 않고 작은 집 한채의 공간이어도 된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그 공간이 침체된 주변 공간의 재생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 공간을 빼앗는 폴리가 아닌 새로운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 폴 리가 되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공의 공간은 주변부와 스며들고 소통함으로써 주변을 변화시키고 활성화시켜 곳곳의 거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방법으로 폴리사업은 변경되어야 한다.

토론 4

폴리, 이대로 좋은가?

홍인화(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폴리 이대로 좋은가?

먼저, 이무용교수님과 이효원교수님의 발표내용에 수록된 이론들과 사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광주 폴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폴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사업은 시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물론 언론, 관련전문가단체, 폴리 설치과정에서 주변 상가와의 갈등 등 사업 시작과 함께 공감은커녕 외면 받는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가 수십억씩 낭비가 되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폴리사업을 추진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지, 이 비판에 대해 사업주체인 시는 어떤 무게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2차 폴리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우리시가 고민한 흔적을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시의회, 언론 등에서 폴리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의 소통 부재입니다.

폴리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고 사업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했습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조차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한, 폴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가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언론보도와 민원신청내용을 살펴보면 충파 앞 상가에서는 프랑카드를 붙이고 데모까지 했고, 이밖에도 구시청사거리, 콜박스사거리 상가 등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폴리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전문가 집단도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과 총감독 중심으로 장소선정은 물론 작품선정 등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물은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로 폴리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구체적인 검증과 의견수렴도 없이 한꺼번에 13개의 폴리를 1년 내에 설치하고, 다음으로 10년 동안 100개의 폴리를 광주시내에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바로 13개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 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허술하게 사업이 진행되었겠습니까? 장소선정은 물론 작품선정, 시민 공청회 등은 할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 이무용 교수님 발표 자료에 수록되어있는 광주 디자인 거버넌스의 7대기관이라고 하는 곳들과의 네트워킹 또한 부족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급하게 서두른 사업추진의 결과가 원래 계획했던 13개의 폴리를 설치하지 못하고 2개가 줄어든 11개의 폴리설치로 나타난 것이고 시민들의 민원 봇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폴리가 설치된 장소, 폴리의 기능성, 유지관리의 문제입니다.

문화는 시간이 중첩된 흔적으로 지역문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광주읍성터를 ‘점’, ‘선’, ‘면’으로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폴리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광주읍성터는 폭이 좁은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보도에는 많은 공공시설물과 가로수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인데 여기에 폴리까지 설치되다보니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폴리는 공공시설물로서 기능보다는 예술작품으로 조형물 적 역할이 더 큰 것 같은데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좁은 보도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감상이 가능하고, 장소에 맞는 스토리가 있는 폴리가 설치되었을 지가 의문입니다. 보도 내에 설치되는 폴리는 예술작품으로의 역할보다는 차라리 공공시설물, 즉 시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폴리가 설치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동로터리의 교통공원에 설치된 폴리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려한 'Good Design'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는 폴리, 감상하는 폴리는 금남로에 설치되어있는 조각품처럼 시민들에게서 외면받는 그저 그런 조형물로 전락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몸살, 작품훼손, 방치 등의 제목으로 신문에 기사화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폴리는 유지관리도 어렵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으로 빛이 나고 유지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폴리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 폐쇄적인 감독선정 과정입니다.

왜! 외국인 감독을 선정했고 감독 선임료는 얼마며 체류비는 얼마인지 등 감독선임의 구체적인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폴리에 대해 많은 언론매체와 시의회 등에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수도 없이 제기했습니다. 한국인인 승효상 감독이 선임되었을 때도 소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과연 외국인 감독이 광주시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이 광주에 얼마나 머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감독의 역할이 인력풀을 활용한 해외작가섭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감독이 선정된 양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와 시민, 관련 당사자들이 외국인 감독선정에 얼마나 공감 하는지, 스타 마켓팅에 대한 효용가치가 얼마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하며, 예술 비엔날레에 대한 비판, 즉 그들만의 리그처럼 폴리도 몇몇 전문가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금년에 추진될 폴리는 장식적 역할보다는 기능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원이나 공공시설물로서 기능과 장소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 금남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아무관심을 받지 못하는 조각품과는 확연한 차별성이 생깁니다. 또, 4개구에 설치할 폴리가 작년에 추진했던 외국인 스타위주의 작가선정이 아닌 내국인의 비율을 높이는 작가선정으로 바뀔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측면에서도 교감을 이룰 수 있고 관광자원화를 이끌어 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1차 폴리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논란이 크니 일단 쉬어가자, 평가를 해보고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하자. 현재 글로벌위기로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폴리에 대한 국비확보가 2014년에나 가능한 상황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민생안정에 먼저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될 폴리의 내용연수의 문제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폴리의 내용연수가 20년으로 되어있는데 시민혈세 500억을 투입해 고작 20년의 민생과는 괴리가 있는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폴리사업은 추진하는 시와 비엔날레를 제외하고는 의회 및 시민, 언론, 전문가단체 등에서 시와 비엔날레에서 성과라고 내놓은 내용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왜! 시민들이 폴리에 대해 관심 없어 하는지, 시에서 주장하는 '폴리시티'로의 관광 명소화는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유무 및 방향을 설정해야합니다.

시민패널

○ 김선재(문화지기단 단원)

○ 이순미(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모임 대표)

○ 김동헌(광주 동구 의원)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북구 북동 236-2 북동신협 3층
전화 :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kwangju@kfem.or.kr / http://gjkfem.or.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eal Exchange Foundation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1-5 삼호별관 2층
전화: 062)234-2727, 팩스 : 062)234-2728
r-cultural@hanmaii.net / http:// www.rcef.or.kr